



전남동부지부장 최귀남
〈푸른농장 대표〉

“조경인의 권익 보호와 수익 증대에 노력”

“신임지부장으로써 다음 두 가지 일은 꼭 이루겠다고 다짐한다. 첫째, 순천지역에 조경수 유통단지를 마련하여 판매 근심 없이 재배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가며 둘째, 전국 철쭉 생산량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순천시에서 철쭉 군락지 조성과 품종개량과 재배연구를 위한 연구동 건립등 전국 철쭉메카로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순천만과 함께 철쭉이 순천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푸른농장을 찾아서...

김해웅 글·사진

우리 조경수 협회의 전남 동부지부와 경남 서부 지부 이 곳 2개 지부는 전남과 경남의 조경수 생산 유통의 중심지역이기도 하지만 두 지부가 있는 지역 즉 전남 순천시와 경남 진주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일 뿐만 아니라 명실공히 전남 동부지역과 경남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도시이다.

이번에는 전남 동부지역 최귀남 지부장의 푸른 농장을 찾아가 본다.

우리사회에 언제부터인가 전남의 동쪽남단인 여수, 순천과 보성군의 별교에 대하여 여수 가서 돈 자랑 말고, 별교 가서 주먹자랑 말고, 순천 가서 인물자랑 말라고 하는 유행어가 생겨난 그 순천 지금은 산업, 교육, 문화의 중심지이자 각종 철새들이 날고 갈대숲 사이로 휘감아 내려가는 S자 수로에 비친 붉은 노을로 유명한 순천만이 있는 관광도시이기도 하다.

푸른 농장은 순천시 외곽의 상사면 오곡리에 자리 잡은 4만평 규모의 야트막한 산에 조성된 단풍나무, 느티나무 같은 활엽수종도 있지만 향토 수종인 가시나무, 후피향나무, 동백나무, 홍가시등 난대성 상록 활엽수가 대부분으로 한눈에 전체 농장이 사방에서 바라다 보이는 그 야말로 아담하게 자리 잡은 농장이다.

최귀남 지부장은 이곳 순천시에서 태어나 1960년대에 순천 농업고등학교와 순천 농업전문학교에서 농업과 임업을 공부한 후 처음에는 농림업과 동 떨어진 주택건설 사업에 종사하여 1970년대 새마을 사업과 산업화에 따른 주택경기에 힘입어 1975년에 지금 농장인 당시 임야

를 구입하였다가 1980년대 초부터 건 설업을 그만두고 임야를 개간 지금의 푸른농장을 조성하여 본격적인 조경 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처음에는 주로 조경공사에 납품이 잘되던 해송, 스트로브 잣나무, 히말 라야시다 등 침엽수를 많이 재배하다 이제는 거의 활엽수종 그 중에서도 난 대수종인 상록 활엽수를 자연친화적 으로 재배하는 향토수종 농장으로 키 워가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경수 농장 특 유의 멋진 조형미를 갖춘 그런 조경수 는 별로 없이 어찌보면 조금 산만해 보이기도 하는 농장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주요 임도부터 거미줄같이 연결한 작은 작업로 까지 아주 실용적으로 정리된 도로와 사이 사이 빈틈없이 채워진 조경 수종들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조성된 농장인지 모르겠다.

예전에는 주로 상품성이 좋거나 시 대에 유행하는 수종을 식재하였으나 지금은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향토 수종인 가시나무류, 후박나무, 후피향 나무등 상록활엽수를 주로 재배하고 특히 애기동백(일명:산다화)과 홍가시 나무 어린묘목을 대량 식재하여 향토 수종을 이용한 조경수 보급에 앞장서 고 있다.

특히 한여름 붉게 피는 배롱나무 꽃 이 피는 기간이 100일간 이다하여 불 인 일명 목백일홍은 이곳 푸른농장에 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며 재배하고 보 급하는 수종이다. 본인 스스로 배롱나 무(일명:목백일홍)는 우리 나라에서 자 기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재배부 터 판매까지 누구에게 지지않을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이시다.

매마침 전남 동부지부 조경수 협회 의 기술세미나에 특강으로 발표할 목

백일홍의 재배에 대한 교재를 보여 준다. 거기에는 목백일홍의 품종선택방법에서 묘목생산의 실생법 과 삼목법은 물론 식재와 비배관리, 병충해 방제와 소득계산까지 수록되어 있다. 1000평 기준 3,300 주 식재후 5년만에 판매시 토지 임대료까지 포함한 제경비를 제하고 순수익만 3천7백여만원의 수익



▲ 농장전경



▲ 농장전경



▲ 농장전경

이 있는 고수의 수종일 뿐만아니라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인기 있는 조경수종으로 현재 근원경 5~6cm이상짜리는 백주이상 한꺼번에 구하기도 힘들 뿐만아니라 근원경 10cm 이상의 대형목들은 더욱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소득 전망도 밝아 재배를 권장하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대량재배하고 있는 농장을 안내하여 이번에는 본 농장에서 3km정도 떨어진 같은 상서면의 응령리 포지를 찾아 갔다.

이 곳 응령리 목백일홍 포지는 평야지대 논 가운데 위치한 면적2천평에



▲ 대형은목서



▲ 관목류 재배



▲ 남부수종 재배(은목서 및 애기동백)

수령 12년생 약 3천본을 재배하고 있는 그야말로 배롱나무(목백일홍)전문포지이다.

이곳 배롱나무 역시 전지 작업이나 기타 수형잡기 손질을 별로 안한 자연 그대로 약간 밀식 되어서 재배되고 있다.

이곳 응령리 농장뿐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되어 약 1만5천평에 근원경 5~12cm의 배롱나무 3만본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멋진 수형으로 손질하여 그야말로 전국 최대 배롱나무(목백일홍)농장으로 키우겠다는 포부가 대단하시다.

이제까지 돌아본 농장의 조경수들이 거의 손질하지 않은 자연 상태대로 재배하는 방식이라 아예 수형은 도외시한 재배법을 쓰느냐 하였더니 아니라고 펄쩍 뛰신다. 물론 대부분의 조경수들이 조경공사용으로 대량 납품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전지작업으로 그치고 있지만 기념식수용이나 건물이나 공원 등의 정원에 메인 수종으로 심을 조경수는 별도 재배한다며 인근의 농장을 안내하여 가보니 2천여평의 농장에 은목서와 애기동백(산다화) 30~50년생 300여본이 그야말로 잘 손질되어 멋지

게 자라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50년생이 넘는 대형 은목서는 수고나 수관이 각각 6m이상으로 단연 압권이었다. 다른 나무들도 대부분 수관폭이2~3m인 반구형 조경수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귀남 지부장은 대경목의 재배뿐만 아니라 어린묘목의 양묘생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방 향



▲ 묘목재배

토 수종인 재래종 동백과, 홍가시, 목서, 가시나무등의 삼목과 실생묘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실생묘 생산한 어린 남천 10만본을 4000여명 토지 전체에 대량 재배하는 등 묘목 생산 보급에도 힘써오고 있으며 조경수 협회와 지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청암대학교 정문 앞인 순천시내 덕월동에 3000평 규모의 나무시장을 차려 놓고 회원 농가에서 생산한 조경수의 위탁 판매와 지역 주민들에게 실비에 직거래 하므로서 생산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뿐 아니라 조경수 보급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최귀남 부회장은 1992년에 우리 조경수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1996년 현 전남동부지부가 분리 결성시 사무국장을 맡아 그야말로 지부발전 위하여 헌신 하였으며 금년 초부터 새롭게 지부장을 맡아 조경인의 권익 보호와 수익 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신임지부장으로써 다음 두 가지 일은 꼭 이루겠다고 다짐한다. 첫째, 순천지역에 조경수 유통단지를 마련하여 판매 근심 없이 재배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가며 둘째, 전국 철쭉 생산량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순천시에서 철쭉 군락지 조성과 품종개량과 재배연구를 위한 연구동 건립등 전국 철쭉메카로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순천만과 함께 철쭉이 순천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최귀남 지부장은 뛰어난 조경인일 뿐 아니라 만능 스포츠맨이기도 하다. 약간 왜소한 체격인 그는 20대 청년시절부터 축구와 정구를 즐겨하여 계속 순천대표선수로 활약하고 있으며 현재 전남지역 생활체육 축구분야 상임 부회장을 맡아 활약하고 있는 스포츠맨이며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이기도 하다.

부인 윤철자 여사(54세)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으며 2남 모두가 순천대학 임산 자원 학과를 졸업 후 현재 온가족이 함께 푸른조경 농장을 경영 하는 조경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



▲ 가족사진



▲ 묘포장